

## 七里의 停年에 붙어

처음 七里를 대하는 사람은 물론하고 그와 오랜 交分을 가진 사람들도 늘 그를 젊다고 생각한다. 자그만한 몸매에 여전히 검은 머리, 그리고 緊張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부드러운 面貌에서 젊음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벌써 停年을 맞이하게 되어 後輩들이 이를 記念하기 위하여 論文集을 엮어서 進室하게 되었다고 하니 한편 歲時이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동시에 그의 學德의 보람이라고 믿어서 慶賀하여 마지 않는다.

七里가 젊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의 風采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記憶力이 出衆하여 지금도 그의 기억력은 어느 靑壯年도 쉽게 따를 수 없을 것이다. 學校에서 지도한 學生의 出身校나 學業 등은 물론하고 졸업후의 活動까지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서 다른 同僚들이 卒業生에 대하여 민망할 때도 있다. 그의 記憶力은 歷史研究에 있어서 유감 없이 발휘되었고, 특히 그 專攻인 近世史의 연구에 있어서 그렇다. 한 人物의 家系와 活動을 거의 逐日的으로 推究하고 하나의 歷史上의 機構의 由來와 變遷에 대하여도 그러하여, 七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바로 눈앞에 歷史의 人物이 活動하고 歷史의 事實이 展開되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 對人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初對面하는 사람들이 通姓名을 하고 家系를 이야기 하다가 黨色이 같은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親분이 두터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對話가 끊어지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七里는 關西 出身인 까닭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가 家系를 【논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七里를 처음 대하는 사람도 바로 그와 친숙하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七里가 史學者로서 많은 업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매우 부지런

하고 또 計劃의이고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同僚들과 會食을 하다가도 저녁 여덟시가 넘으면 就寢할 시간이 되었다고 안절부절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연구하고 原稿를 쓰기 위한 것이다. 남들은 講義時間을 午後에 넘으려고 하는데 七里는 아침 첫시간에 강의를 하며, 그 보다는 두 시간 쯤 일찍 研究室에 나온다. 또 國內나 國外的 旅行도 자주 하지만 國內의 旅行은 물론하고 外國旅行도 미리 잘 계획하여 史蹟과 史料를 찾아서 時間과 勞力의 浪費 없이 活動한다.

七里의 對人關係는 한마디로 말하여 부드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外柔內剛한 것이다. 自己의 所信을 함부로 굽히지 않는다. 그리하여 學校 內에 있어서의 敎務關係의 職責이나 副總長의 任도 맡은 일이 있으나 校外的 이른바 世俗的인 榮職에 대한 유혹에는 결코 응하지 않았고 또 雜牧 같은 것에도 關心을 두지 않고 史學者로서 특히 近世의 開化史에 沒頭하여 온 까닭으로 그 많은 業績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釜山에서의 避難時에 七里를 알게 된 후 어느덧 40년에 가까운 歲月이 흘렀다. 이 오랜 期間 그가 學問에 精力을 기울인 만큼 그의 젊은 氣力도 多少는 減退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보나, 아직도 그에게는 老益壯이라는 表現은 어울리지 않고 壯益壯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욱 健康하시고 學問上으로도 한층 더 많은 業績을 남기실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1989年 2月 日

全 海 宗 謹記